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여름

# 방향성특강

안녕, 자유!

참가안내

#### 초등 토론

어린이, 자유를 넘보다 5강

★ 자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자유를 묻는 어린이들

#### 중등 정치경제

보이지 않는 손, 10대의 삶을 흔들다 5강

★ 10대를 위한 정치경제학 입문

#### 고등 철학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유 5강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 중고등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학부모 특강

사춘기는 없다 1강

★ '질풍노도'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어른, 청소년 함께 성장하기



#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여름특강 “안녕, 자유!” 기획 소개 및 진행 안내

## 1. 초대말씀

인류의 역사에서 자유만큼 많은 사람이 갈망해온 것이 있을까요? 거창한 정치나 사상의 자유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신도 한 번쯤은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일어날 때나 산 더미 같은 일거리가 눈앞에 놓여있을 때, 미디어를 통해 드넓은 자연을 감상할 때 지금 나를 움아매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유는 출발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필요했던 이유는 신체를 구속받았기 때문이고, 종교의 자유가 필요했던 이유는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필요했던 것 역시 세계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었겠죠. 이처럼 자유는 막연히 즐거운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당신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무언가로부터 억압받거나 구속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에서는 자유의 개념과 경계가 모호해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억압인지 알아차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자유가 있냐는 질문에 한쪽은 혐오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고, 한쪽은 혐오 표현이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할 자유, 교육 분야에서 경쟁할 자유는 어떤가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들이 말하는 자유가 정말로 우리를 먹고 살 걱정이나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여름특강 ‘안녕, 자유!’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의 자유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답이 어디로 향할지는 함께 할 우리 모두의 몫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출발은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 더 진정한 자유로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 2. 개설 강좌(모든 강좌는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초등 토론] 어린이, 자유를 넘보다 (5강)

★ 자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자유를 묻는 어린이들

▲ 참가자 : 12~13세 △ 일시 : 8월 1~5일, 오전 10시~12시

[중등 정치경제] 보이지 않는 손, 10대의 삶을 흔들다 (5강)

★ 10대를 위한 정치경제학 입문

▲ 참가자 : 14~16세 △ 일시 : 8월 1~5일,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고등 철학]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유 (5강)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 참가자 : 17~19세 △ 일시 : 8월 1~5일, 오후 5시 30분~7시 30분

[중고등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참가자 : 14~19세 △ 일시 : 8월 1~5일, 오후 3시~5시

[학부모 특강] 사춘기는 없다 (1강)

★ '질풍노도'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어른, 청소년 함께 성장하기

▲ 참가자 : 강좌 신청 청소년의 보호자, 나다가 궁금한 어른들 △ 일시 : 8월 6일, 오후 7시

## 3. 강의 시간표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오전 10:00~12:00	초등 토론 “어린이, 자유를 넘보다”				
오후 12:30~2:30	중등 정치경제 “보이지 않는 손, 10대의 삶을 흔들다”				
오후 3:00~5:00	중고등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상을 보는 창”				
오후 5:30~7:30	고등 철학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유”				

## 4. 참가 신청

- 개강 : 2022년 8월 1일
- 접수 : 2022년 7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 장소 : 교육공동체 나다(6호선 마포구청역 7분,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 3층)
- 정원 : 모듈별 10명
- 강좌후원금 : 초·중·고 각 10만원, 학부모 강좌 무료(회원 20% 할인, 납부예외 문의)
- 계좌 : 국민은행 762302-04-169524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 문의/신청 : <http://nada.jinbo.net> 방학특강 게시판, 02-324-0148, 010-9229-6491
- 후원 : 민들레출판사

#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여름특강 “안녕, 자유!” 강좌별 소개

토론 초등	어린이, 자유를 넘보다 (5강)
	★ 자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자유를 묻는 어린이들
참가자	12~13세 초등 청소년
일시	8월 1~5일, 오전 10시~12시

어린이를 보며 이따금 어른들은 한숨 쉬듯 말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좋을 때다.” 어떤 어른들은 어린이일 때가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운 때라고 말합니다.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나이라고 말이죠. 어린이인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당신은 자유롭나요?”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자유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쳐주고 누가 우릴 bat줄로 꿰뚫어 묶어두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허락 없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스마트폰 앱 사용 기록은 부모님께 감시당하고, 매일 학교며 방과후 수업이며 학원이며 다니느라 바쁜 어린이에게도 정말 자유로운 세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른들에게는 자유로운 세계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어른도 어린이도 자유롭지 않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어린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유란 게 필요한 거 같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 어떻게 얻어내야 할지 고민인 어린이인 당신, 우리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눠봐요.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찾아 질문 속으로 모험을 떠나보는 거예요.

.....

## 1강\_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험

수업 시간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보단 밖에서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게 더 자유롭다는 건 아마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이따금 그렇게 놀고 있을 때도 자유롭지 않다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자유란 건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는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자유롭다는 건 뭘까요? 앞으로 떠날 자유를 찾는 모험을 위해 이 알쏭달쏭 ‘자유’란 녀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 2강\_ 어린이에게 자유는 위험할까?

어른들은 어린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걸 이래서 위험하다, 저래서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마음대로 하는 스마트폰도, 게임도, 띠부띠부씰 중고거래도, 혼자 버스를 타는 것도 다 위험하대요. 어린이는 아직 판단력이 떨어지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대요. 그럼 자유란 건 사실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자유롭고 싶은 어린이는 어떡하죠? 어른들 말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꼭 참아야 하나요?

## 3강\_ 자유롭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까?

하루에 문제집 몇 장, 영어 단어 몇 개를 다 외우는 미션을 완료해야지만 자유시간 갖는 걸 허락해 주는 어른들이 있어요. 귀찮은 방학숙제도 어린이가 방학에 너무 놀기만 할 순 없으니깐, 놀면서 공부도 빼먹으면 안 되니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명 공부하지 않은 자, 놀지도 말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방학숙제를 하지 않는 어린이는 방학을 즐길 자격이 없는 걸까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정말 있는 걸까요?

## 4강\_ 너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함께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서 한 번쯤은 혼났던 기억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할까요? 선생님도 자유가 있고, 나도 자유가 있는데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요. 하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면 선생님의 자유가 사라진대요.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의 자유도 사라진대요. 그럼 교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걸까요? 모두가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5강\_ 어린이, 자유를 외치다!

자유롭기 위해 고민하는 어린이에게 어른들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유일까요? 여기 우리가 함께 질문해서 찾아낸 어린이의 자유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보아요!■

# 정치경제 중등

## 보이지 않는 손, 10대의 삶을 흔들다 (5강)

★ 10대를 위한 정치경제학 입문

참가자	14~16세 중등 청소년
일시	8월 1~5일,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치적 권력자들의 마지막은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악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적 권력은 언제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반대로 경제 역시 그 흐름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정치적 위치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우리 일상에 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고 분석하지 않은 채 단순히 누가 권력자가 됐는지 어느 정당이 승리했는지에만 집착한다면, 불행한 역사는 계속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강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경제 이론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분석틀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보다 나은 일상을 향한 실천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론 없는 실천만큼이나 실천하지 않는 이론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들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기 그지없으니까요. 이번 강좌가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 1강\_ 아무도 원하지 않은 자유 : 자유와 평등의 관계

우리는 학교에서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 배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한 쪽이 훼손될 수 있는 일종의 대립적인 관계로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온 자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둘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그것이 특정 누군가의 권력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또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재정립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2강\_ 내 행복의 대가는 너의 불행? :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

“두 햄버거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게의 주인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유롭게 하지만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두 가게주인의 이기심은 서로의 매출을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햄버거를 더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속에는 이 사회 경제논리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햄버거가게 주인과 소비자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쓰여야 할까요.

### **3강\_ 내 노동의 손익계산서 :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대가를 받는 것.’ 모든 노동자의 꿈입니다. 그런데 나의 노동의 가치는 누가 어떻게 매기는 것일까요? 반대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 정해놓았을 규칙이 정말 내 노동의 가치를 잘 대변해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원리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매겨지듯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어떤 기준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이 학벌, 외모, 토익점수 같은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동의 가치가 매겨지는 진짜 기준은 훨씬 깊숙한 곳에 존재합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기준을 알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4강\_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 사적 소유와 공동체적 소유**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밥을 먹고, 더 나은 밥그릇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의 것, 너의 것을 나누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 **5강\_ 청소년주의 선언 : ‘청소년’이라는 소수자 집단의 정치성**

청소년은 언제나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사회에 반영시키지 못했고 필연적으로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끊임없이 길들여져 오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위한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철학 고등

##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유 (5강)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참가자	17~19세 고등 청소년
일시	8월 1~5일, 오후 5시 30분~7시 30분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것만 같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처럼 성적으로만 품질을 결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자유는 오히려 불량품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더 자유롭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유보다 먼저 학생으로서 책임(공부)을 다해라.’ 이런 충고들 속에 자유는 청소년의 인생에서 미뤄지고 지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유라는 가치는 시험 성적의 가치보다 못한 것일까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 자유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일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를 향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 질문을 할 자유도 없이 살아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

### 1강\_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놀이 말고 공부해라”는 잔소리의 이면에도 아마 이런 논리가 숨어있을 법하지요. 혹시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자유가 그냥 자유지 무슨 책임이 따라? 책임이 따르면 그게 자유야?” 몰라서, 두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이 논리를 제대로 따져 묻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떼어봅시다.

### 2강\_ 죄와 벌 : 근대철학의 자유 논쟁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당신의 바람이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삶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섭리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결정된



다면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요? 신의 권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이성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싶었던 근대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두려워 다시 족쇄를 채우기까지 그들은 어떤 고뇌를 했었던 걸까요?

### 3강\_ 모두의 이기심을 자유롭게 하라 : 자유주의의 함정

사람들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간편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꽤 피곤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대로 뒤도 꺾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허용해도 결국은 아무도 제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현명한 이기주의자들이 고안한 자유 지상주의의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 4강\_ 천국에는 자유가 없다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자유는 평등을 방해하고 평등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도 자유와 평등은 반비례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철 지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은 흔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대립한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등, 둘 중 하나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 5강\_ 자유로부터의 도피 : 자유와 복종의 갈림길에서

평생 우리에게 간혀 살아서 문이 열려있어도 밖을 나서지 못하는 짐승처럼 복종에 길들여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부분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지배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송곳처럼 빠져나온 자유를 향한 열망은 이제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감옥이 더 자유롭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은 정들었던 감옥을 떠나 낯설고 두려운 바깥세상으로 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b>입문</b> <b>중고등</b>	<b>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b>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b>참가자</b> 14~19세 중고등 청소년 <b>일시</b> 8월 1~5일, 오후 3시~5시 <b>특이사항</b> 중등과 고등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anitas(인간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인간’이라는 동일률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만 몰라본 게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속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은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대상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를 좁혀나가기 이전에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 즉 ‘거리두기’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나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공부든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태도 없이는 학문적인 성취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부에, 특히 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공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인문학적 사고가 실종된 공부의 과정은 공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다에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인 셈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강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싸움의 흔적이 강좌를 마친 자리와 강좌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화려한 영상은 굳이 활자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딱 짜인 아이들의 일과는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인 문학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은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문학책을 던져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번역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문학의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혹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 2강\_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꼬마 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멋지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진 꿈, 누군가에게 강제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향한 열망은 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직과 구속을 꿈꾸며, 평등을 멸시하고 자유롭지 않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잃어버린 꿈의 마지막 조각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만나봅니다.

## 3강\_ 문화, 의미의 거미줄

문화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화생활을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보통 이때의 문화는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좁은 의미를 뜻하겠지요.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만들어낸 총체적인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뜻합니다. ‘문화’라는 단어를 뜯어본다면 글월 文 文과 될 화 化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 세계가 어떤 문화를 갖춰나간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기호의 체계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문학의 언어처럼 눈에 보이는 글자가 아닐 뿐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의미와 상징들로 이뤄진 문화라는 거미줄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세계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 4강\_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지만, 광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광고는 알 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이미지와 문구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주부들은 사지도 못할 고급 냉장고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왜 아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눈을 빼앗기는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5강\_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좀 으스스하지만,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모피어스가 나타나 속삭였을 법한 물음... 여러분은 자신이 사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혹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가상이라는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 학부모 특강

### 사춘기는 없다 (1강)

★ '질풍노도'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어른, 청소년 함께 성장하기

참가자	강좌 신청 청소년의 보호자, 나다가 궁금한 어른들
일시	8월 6일, 오후 7시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으며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유를 물으면 말수가 줄어들어서, 대화를 피해서, 비밀이 많아져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서, 괜히 짜증을 내고 슬슬 반항하기 시작해서 등 다양한 증상(?)을 토로하곤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민은 보통 비슷합니다. 더 강하게 마음먹고 이끌어줘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풀어주고 지켜봐야 할지, 좀 세게 나가면 반항할까 걱정되고, 풀어주면 옳나 가거나 자기중심을 못 잡고 학업에서 뒤쳐질까 걱정되고, 이 둘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하다 결국 한숨을 쉬게 되죠.

‘아, 자식 키우기 너무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로 대표되는 사춘기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통과의례처럼 여겨집니다. 전두엽이니 도파민이니 어려운 단어를 들이밀며 그들의 미숙함과 불안정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잘 통제하고 이끌어줄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하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 역시 자신이 그런 시기에 속해있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면 우리는 또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춘기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라는 시기가 만들어 낸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청소년과 어른들의 갈등도 이 잘못된 틀에 끼워 맞춰 그들을 바라보고 재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시각으로 부모와 어른, 청소년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나다의 학부모 특강에서는 앞부분에 짧게 강의를 한 후 각자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평소 나다와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궁금하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청소년의 삶에 다가기 위해선 주변의 고민과 변화 역시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할 때 나의 삶도 변화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여름특강 소개 마침■